

백신애 소설 연구

-여성 작가와 정체성 탐색의 글쓰기

우신영*

차례

1. 서론
2. 정체성의 충돌과 혼란(1929년 이전)
3. 1기 소설 : 이념을 통한 세계 이해(1934~1935년)
4. 2기 소설 : 체험 세계에 대한 성찰(1936~1937년)
5. 3기 소설 : 여성 주체의 표명과 서술 양식의 다양화(1938년~1939년)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백신애 소설이 여성 작가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는 가정 하에, 그 정체성 탐색의 소설적 형상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백신애는 그가 갖고 있는 경계인적 성격으로 인해 소설 창작 과정에서 작가 의식의 변천을 보였다. 백신애는 안락한 여성 부르주아의 삶을 향유 하도록 요구하는 어머니와 투쟁과 참여의 삶을 추구하는 오빠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는 데뷔작 『나의 어머니』를 통해 형상화되며, 이 작품은 이후 백신애 소설 세계의 해석 방향을 틀지워줄 수 있다.

둘째, 백신애의 소설 세계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 각 작품군의 특징과 통시적 변화를 살폈다. 먼저 백신애는 자전적 서사의 시도를 통해 작가 자신의 글쓰기 자체가 정체성 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보인다. 1기 소설에서는 유이민 문학이나 빈민소설 등을 창작함으로써 이념을 통한 세계 이해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들은 백신애라는 작가 개인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계를 다루고 있었던데 반해 2기 소설에서는 작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체험 세계에 대한 성찰이 수행된다.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무력한 남성지식인의 내면이나 가부장제에 의해 희생되는 중산층 여성들의 삶이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3기 소설에서는 절대미나 힘에 능동적으로 투신하는 여성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작가 자신이 참된 여성 주체를 표명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작가의식의 궤적과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백신애의 수필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필에 드러난 작가의 경험과 관념이 백신애 소설의 해석에 원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신애의 새로운 수필 『서리찬 새벽. 별레 먹은 포푸라입새. 아! 상엽(霜葉)의 임종(臨終)이여, 부러워라』를 발굴하였다.

핵심어 : 백신애, 백신애 소설, 정체성 탐색, 경계인, 여성 주체, 여성적 글쓰기, 자전적 소설

1. 서론

백신애(白信愛)의 소설은 주로 전기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리얼리즘적 시각¹⁾이나 페미니즘적 시각²⁾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히 백신애 소설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정신분석학 이론이나 탈식민주의 이론과 접목되면

1) 한명환, 『백신애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6. 정일진, 『백신애소설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1989. 하소양, 『백신애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김현전, 『백신애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2)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7. 방영이,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2. 안숙원, 『백신애의 반미학과 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 4, 2000. 최혜실, 『백신애 문학에 나타난 이중적 타자성』, 『현대소설연구』 24, 2004. 김지영, 『백신애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38, 2008.

서 백신에 연구에 있어 그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백신에 소설에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인물 형상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작가의식의 변천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그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백신에 문학이 여성 작가로서 수행했던 정체성 탐구의 형상화 과정이었다고 가정한다. 백신에는 자전적인 첫 작품 『나의 어머니』³⁾에서 이미 본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들의 긴장과 갈등을 의식하며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에 의해 일체의 글읽기와 글쓰기를 금지당했던 작가⁴⁾에게 있어 창작 활동은 정체성 투쟁의 한 방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백신에의 실제 창작활동 기간이 6년 정도이고 작품 수 역시 많지 않은 규모이므로 전체 작품이 구성하는 백신에의 소설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정 작품군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백신에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통시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작가 의식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 글은 1. 백신에 소설이 작가의 정체성 탐색 활동의 소산으로 첫 작품 『나의 어머니』가 백신에의 이후 작품세계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2. 『나의 어머니』에서 제기된 정체성 문제가 이후 작품들, 특히 1939년작 『아름다운 노을』⁵⁾과 『혼명(昏冥)에서』⁶⁾를 통해 응답되어 갈 것이며, 3. 활동 기간 동안 씌어진 작품 전편을 작가의식의 변천이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살필 때 각 텍스트의 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가

3) 백신에, 『나의 어머니』, 『조선일보』, 1929.1.1.

4) “그는 하나뿐인딸이게 오-직 바란 것은 富와 壽이었고 無智의 幸福였는가한다. 겨우 혀를 돌닐줄알때부터 글을 가르쳐주려고 가진애를 다-쓰든 그가 長成한 나의게서 도로혀 글을 禁하도록 變하여진 理由는 암아도 社會主義요, ㅁ빠가 投獄되든때부터 일것이니 朝鮮語新聞을 읽지 못하게한것도이 方面소식이 많이 슬이는까닭이었다.”
백신에, 『私囁』, 『조광』, 1937.7. 48쪽.

5) 백신에, 『아름다운 노을』, 『여성』, 1939.11~1940.2.

6) 백신에, 『혼명에서』, 『조광』, 1939년 5월.

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해명하기 위해 백신애의 창작활동 기간을 각각 1기, 2기, 3기로 나누어 작품경향의 흐름을 살피되 서술 대상이나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점을 살피려 한다.

또한 백신애는 소설보다 수필을 더 많이 남겼는데, 이러한 수필들에 해당 시기 그녀의 생활과 이념, 정신적 고충들이 뚜렷한 논조로 드러난다. 따라서 수필은 백신애의 불명확한 전기나 소문, 여류기자/작가에 대한 오해와 편파성을 보이는 당대의 비평보다 유효한 조명 방법⁷⁾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기적 사실들의 증거로만 활용되던 작가의 수필들을 백신애 소설의 지향과 변화를 해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이 범할 수 있는 의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수필을 통해 드러난 백신애의 관념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즉 수필에 드러난 백신애의 사상을 소설 창작 의도와 등식화하기보다는, 수필을 통해 작가의식의 지향성을 살피고 구체적인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신애의 소설세계를 구축하게 한 정체성 탐색의 궤적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정체성의 충돌과 혼란(1929년 이전)

2.1. 경계인으로서의 백신애

백신애는 1908년 5월 20일 경상북도 영천면 창구동에서 거상 백내유

7) 작가의 수필을 통해 그의 소설을 적극 조명하는 연구 방법은 다음의 논문에서 빌린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박영희의 소설과 수필 사이의 상이성(homology)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작업도 포함시켰다.” 조남현, 『박영희소설 연구』, 『인문과학논총』 18, 1986, 27쪽.

(白乃酉)와 구교육을 받은 이내동(李內東)의 딸로 태어났다. 아명은 무잠(武岑), 호적명은 무동(戊東)이었다. 영천과 경산을 비롯한 대구 인근 지역은 그녀의 소설이나 수필의 주 무대로 활용되는 동시에 그녀가 서울의 중앙 문단과 다소 거리를 두고 창작 활동을 진행한 이유가 된다. 아버지 백내유는 일본인 첩을 둔 개명꾼이었고 정미소로 시작해 거상이 된 인물이었다. 아들 기호(基浩)⁸⁾는 일본 유학을 보내고, 딸 신애는 본적을 여섯 번이나 바꾸어 학적을 위조한 후 17살에 영천보통학교 교원으로 만 들만큼 교육열이 있었던 그는 그러나 아들 기호의 구속과 함께 백신애의 공부를 강하게 저지한다.

시베리아행을 감행했다가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세탁부로 일하며 일본에서 고학하기도 하지만 결국 백신애는 은행원 이근채(李根采)와 결혼하여 경산 과수원에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백신애의 궤적은 이미 그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준다. 즉 그녀의 작가의식은 본인이 가졌던 경계인⁹⁾으로서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가족애와 자유, 보수적인 어머니와 사회주의자 오빠, 지방 과수원에서의 생활과 이국, 특히 러시아에 대한 동경 등의 대립적 가치가 백신애의 내면에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수필 『자서소전(自敘小傳)』(1939)¹⁰⁾ 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긴장감은 백신애로 하여금 그녀를 둘러싼 대립적인 세계의 균열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적 취약성, 순박하

8) 백기호(1903~?) : “조선공산당원.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21년 12월 영천기독청년회에 가입했다. 영천구락부 집행위원, 영천청년회 간부를 지냈고, 정우회(正友會) 발기에 참여했다. 1926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6월경 ‘제2차 조공 검거사건’ 때 검거되어 1927년 4월 면소처분을 받았다.”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226쪽.

9) 백신애의 작가의식을 ‘경계인으로서의 의식’으로 규명한 시각은 김지영, 위의글, 39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0) 백신애, 『자서소전』, 『여류단편결작선』, 1939.1.

게만 여겨지는 농민들의 비열함, 방향을 잃어버린 모던보이들의 퇴폐성 등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고 이는 이후 작품들을 통해 형상화된다.

2.2. 어머니와 오빠 사이

특히 백신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어머니와 오빠가 각각 대표하는 가치관¹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신애의 수필 『금잠(金簪)』(1937)¹²⁾을 보면 그녀가 금비녀 사기를 두고 갈등하는 체험이 드러난다. 백신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름한 여인의 심리’로 인해 금비녀 사기를 걱정하지만 혼자 있게 되면 같은 돈으로 서적을 사고자 한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나 혼자 있을때 생각하면

『백원(百圓)을 가지면 내가 위선 보고 싶어 하는 서적(書籍)을 몇권이 라도 사볼수 있을것인데.....』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얼른 사지 않고 있었다.

그 후도 늘 평계해야 말하면, 모다들 원하는 바람에 마음이 또다시 움직여

『어머니 금비녀 사기보다, 서적(書籍)을 사는 게 얼마나 더 효녀(孝女)가 되지요?』하고 물어봤드니 어머니는 물론이요, 모다 반대(反對)를 하고 논박을 하는데 정신이 암암 할 지경이었다.¹³⁾

그녀는 다섯 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고 밝힐 만큼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금비녀가 표상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어머니는 소설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가치를 주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반

11) 이러한 분석은 선행 연구, 특히 최혜실, 『백신애 문학에 나타난 이중적 타자성』, 『현대소설연구』 24, 2004.에 힘입은 바 크다.

12) 백신애, 『금잠』,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4.

13) 백신애, 위의책, 226쪽.

면 금비녀와 경쟁하는 가치인 ‘서적’의 세계는 백신애가 오빠로 인해 알게 된 세계이다. 서적의 세계를 경험했고 동경하는 까닭에 백신애는 금비녀가 상징하는 부르주아적 세계의 매력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구교육만을 허락했던 아버지의 눈을 피해 백신애는 오빠의 독서행적을 그대로 좇아갔고 결국 오빠에게 감화되어 여성동우회, 여자청년동맹, 근우회 등에 가입¹⁴⁾하게 된다. 백신애의 많은 자전적 소설들에서 이 ‘금비녀-현실’과 ‘서적-이상(理想)’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 백신애의 데뷔작 『나의 어머니』는 이후 소설들에 대한 독법을 제공해주는 작품이다.

2.3. 자전적 서사의 시도

『나의 어머니』(1929)는 여자청년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 청년회 활동을 이어나가는 ‘나’의 이야기로, 여성작가로서는 최초의 신춘문에 당선작이다. 당선 이후 1935년까지 백신애는 가시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작품 속 ‘나’의 처지는 여러 모로 백신애 자신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백신애 자신이라고 등치시켜 보기는 힘들다. 월급을 타오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인물 ‘나’의 모습은 1929년 당시 영천의 돈줄로 행세하던 백신애의 집안사정과는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전적 소설¹⁵⁾임을 부정할 수 없는 까닭은 ‘나’라는 인물이 직업적 경력 면에서 백신애

14) 근우회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1기 소설의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1. 여성에 대한 사회,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2. 일체 봉건적 미신 타파, 3. 조혼폐지 급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급 공창 폐지,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 6. 부인 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급 산전 산후 임금 지불, 7. 부인 급 소년노동자의 야업 폐지 등.” 이회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9, 43~44쪽.

15) Philippe Lejeune,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35쪽. 참고.

의 연보와 거의 일치하며, 작가 본인이 수필 등에서 거듭 고백하던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겪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홍일점으로 연극연습을 지도하고 밤늦게 돌아온 ‘나’는 잠들지 않고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맞닥뜨린다. 이 대면의 장면이 소설의 내용 전부이다. 도덕과 인습을 기준삼아 비난하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사회주의에 투신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의 감정에도 공명한다.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과 분노, 동정은 미묘하게 전개되다가 무엇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끝을 맺는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후 이념을 통한 세계 이해와 체험 세계에 대한 성찰을 경유하여 10년 후 『혼명에서』(1939)를 통해 본격적으로 탐색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후 백신애 소설 읽기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머니의 전통적 사고와 그것이 주는 고뇌에 대해서는 상당한 서술을 하면서 ‘나’라는 인물 자신의 사상성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백신애가 여성 단체 활동에 열심이었으나 실제 그녀의 사상은 체험보다는 독서를 통해 일구어진 것¹⁶⁾이었고 작가가 자신도 이 시기를 ‘사회주의 서적 몇 권 읽고 시골 구석에서 갓 뛰어나간 순진한 소녀의 정열로 회고’¹⁷⁾했다는 사실에서 일정 부분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어릴 때 알짜이 파세프 작인 ‘노동자 인세롭프’라는 소설을 열광해 읽은 기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작가 좌담회』, 『삼천리』, 1936.2, 252쪽.

17) 홍성순, 『백신애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11쪽.

3. 1기 소설 : 이념을 통한 세계 이해(1934~1935년)

3.1. 결혼과 전원 생활

이후 백신에는 시베리아 행을 감행한다. 이 시베리아 행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백신에 자신의 진술¹⁸⁾도 모호하기만 하다. 그녀의 진술만 믿는다면 그녀는 그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북국에 대한 동경과 방랑벽을 품고 가족의 귀여운 ‘잠자리’ 대신 용감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 이러한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 수필에서 언급된 부분과 소설 『꺼래이』(1934) 속 사건들이 합치되고, 일경에게 잡혀 고문당한 백신에를 백내유가 구명한 것 등으로 보았을 때 이 시베리아 행이 단지 낭만적 가출 목적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때 결혼과 근신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피해 일본¹⁹⁾으로 달아나기도 하지만, 결국 백신에는 이혼한 전직 은행원²⁰⁾ 이근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슈크림』이라는 수필²¹⁾을 보면 이들이 피로연장에서부터 불화했다는 소문이 무색하리만큼 결혼생활의 즐거움이 과시되고 있고, 수필 『연당』에서 역시 집안 남자들의 규정에 반발하지 않으면서 소박한 가정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초기 결혼 생활은 백신에에게 어느 정도 창작의 자유를 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에는 지금의 대구시 동구 괴전동 과수원 가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

18) 일문으로 작성된 이 수필은 시베리아 행의 동기를 매우 낭만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백신에,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 『국민신보』, 1939.7.2.

19) 백신애가 일본대학 예술과에 다녔다는 데 대한 증거는 뚜렷하지 않은데 학적 기록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불타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한명환, 『백신에문학연구의 향방과 전망』, 『인문과학논총』 23, 2009, 110쪽.

20) 그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 중 농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은행원과 의사이다.

21) 백신에, 『슈크림』, 『삼천리』, 1935.4. 물론 이후 또다른 자전적 소설 『혼명에서』에서는 인물 ‘나’의 발화를 통해 결혼이 애초에 ‘허공으로 돌던지기’였다고 진술된다.

하고 이 시절 동안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한다. 결혼은 내지 신문 읽기와 편지 쓰기를 제외한 문자생활을 엄금했던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수원을 관리하면서 농민들과 접촉했던 경험은 이 시기 백신애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유복하고 안정된 삶을 운영하면서도 주로 빈궁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썼고 여전히 가족과 현실의 요구를 벗어나고 싶은 내적 욕구를 갖고 있었다. 이런 갈등은 소설 『낙오(落伍)』(1934)²²⁾에서도 드러나는데 작품 속 두 여성인물 정희와 경순은 작가의 소설적인 두 분신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결혼을 얻어 버리고 동경으로 떠나는 교원 ‘정희’의 과단성을 소극적인 친구 ‘경순’의 시각에서 그림으로써 작가는 자기 삶의 두 가능성을 동시에 전개해보았다고 여겨진다. 현실과 이상의 긴장 속에서 일단 현실 편을 선택했던 작가가 소설쓰기를 통해 정체성의 분열을 형상화하고 해소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백신애는 과단성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이런 작가의 지향은 수필 『납량이제(納涼二題)』, 『제목없는 이야기』, 『도취삼매』 등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은 『납량이제』의 일부이다.

좌우간 야금야금 생각만 하다 마는 것이 안이고, 할까하는생각이들면 덜컥묵턱대놓고 해놓고보는 그러한용단성이있어야 진취(進就)가있는거며, 인생(人生)이란 모든 것이다 모험(冒險)이니까 그는 반드시나의게 가르침이 될 좋은동무다,라고생각되었다.²³⁾

백신애는 자신에게 커피를 부어버린 친구의 과감함을 칭찬하며, 중이 된 여류소설가 K(김일엽으로 추정된다)를 비난하면서도 그녀의 용단을

22) 백신애, 『낙오』, 『중앙』, 1934.2.

23) 백신애, 『납량이제』, 『조선문단』, 1935.4~5. 183쪽.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의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기차’ 모티프도 혼자 철로를 달려가는 단독성과 유쾌한 용단성(勇斷性) 때문²⁴⁾이라는 진술이 보인다.

3.2. 유이민 문학의 시도

『꺼레이』(1934)²⁵⁾는 전술했듯 수필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와 많은 부분 합치되는 소설로, 토지 수탈 후 만주로 갔다가 죽은 아버지의 뼈를 찾으러 방랑길에 오른 한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유이민 문학²⁶⁾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토지 수탈로 인해 만주행을 택할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이야기는 이후 소년소설 『멀리 간 동무』(1935)²⁷⁾와 콩트 『가지 말게』(1937)²⁸⁾에서도 등장한다. 시베리아의 흰 벽돌집에 다른 꺼레이들과 감금되었다가 다시 쫓겨가는 과정에서 어린 순이(順伊)가 보여주는 태도는 상당히 성숙하다. 그는 부당한 대접에 가장 먼저 나서서 항거하며 꺼레이들에 비해서도 더욱 소수자인 중국인 쿨니를 배려해준다. 반면 함께 갇힌 두 명의 사회주의자 청년들은 쿨니의 이불을 빼고 자신들이 사회주의자지만 강조하는 등 부정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후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 말고 일어서라”는 바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이의 모습은 이 작품이 단순히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 도식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24) 백신애, 『정거장 4제』, 『삼천리』, 1935.10.

25) 백신애, 『꺼레이』,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에 수록.

26) “유이민 문학은 국권쇠퇴기에서 국권상실기에 이르는 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한 유이민 문제를 반영한 문학 전반으로 규정된다.” 표인복, 『한민족문화의 외연』, 『한민족문화연구』 20, 2007, 119쪽.

27) 백신애, 『멀리 간 동무(童舞)』, 『소년중앙』, 1935.1.

28) 백신애, 『가지 말게』, 『백광』, 1937. 6.

그때 천군만마 같이 시베리아 넓은 벌판을 제맘대로 달러온 바람결이
 좌「짜리」숲을 흔들며, 「순이야. 울지말고 이리서라」고 명령하듯 소리쳤읍
 니다.²⁹⁾

백신에는 수필 「철없는 사회자」³⁰⁾에서 여자청년동맹창립 기념식을 성
 사시키고 모두가 기피하는 사회를 보았을 때를 회고하며 이론만 내세우
 는 책상머리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을 은근히 비판한 바 있다. 「꺼레이」는
 이념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려는 소설 대신 수난당하는 여성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소설이 됨으로써 이후 그녀가 오래도록 천착하는 여성의 수난
 문제를 예기하게 한다.

3.3. 빈궁 속의 여성

1934년 작인 「복선이」³¹⁾, 「채색교(彩色橋)³²⁾, 「적빈(赤貧)³³⁾에서는 극
 도의 가난을 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여성들의 삶이 그려진다. 작품 속 여
 성인물들은 복선, 복순, 귀남 등 하나같이 그녀들의 운명과는 반어적으
 로 명명되고 있다. 「복선이」(1934)의 경우 이후 「소독부(小毒婦)」에서도
 등장하는 조흔³⁴⁾ 여성의 불행이 주된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데, 가난 때
 문에 시집은 열네 살 복선은 남편인 최서방의 성적 요구에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마지막엔 갑작스럽게 이 남편이 정미소 기계에 치여 죽
 어버림으로써 복선의 불행이 강화되는데, 이는 백신애의 아버지 백내

29) 백신애, 「꺼레이」,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 222쪽.

30) 백신애, 「철없는 사회자」, 『중앙』, 1936.4.

31) 백신애, 「복선이」, 『신가정』, 1934.5.

32) 백신애, 「채색교」, 『신조선』, 1934.10.

33) 백신애, 「적빈」, 『개벽』, 1934.11.

34) 당시 여성의 90% 이상이 농촌여성으로 평균 16.6세에 조흔했으며 문맹률은 92%에 달했다.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 2001, 37쪽.

유가 정미소를 운영했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적빈』(1934)은 백신에 소설을 리얼리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평자들에게 의해 가장 주목받아온 작품이다. 이 소설에 드러난 빈궁의 문제는 그 로테스크한 묘사에 의해 강화되는데, 무능하거나 중독된 남성인물들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음식을 벌고 그 음식을 분배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진다. 큰아들은 해산 전인 아내의 음식을 먹어버리는 ‘돼지’로 그려지고 이후 『식인(食因)』 등에서도 이러한 남성인물들은 반복해서 등장한다.

『식인』³⁵⁾는 1936년작이지만 『적빈』과 상당히 유사한 모티프를 가진다는 점에서 1기 작품군에 넣을 수 있다. 『식인』 속 남편은 복중태아를 세 번이나 유산시키고 네 번째 낳은 딸은 던져서 죽이는 인물로 『적빈』의 큰아들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남편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에도 아내 ‘옥계댁’은 오직 침묵으로만 응수한다. 결국 ‘옥계댁’은 자신을 좋아했던 남자의 농장에서 일을 하다 아이를 낳고, 이후 건물 상량식 제수음식을 미리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 제수음식에 부정할 손을 대면 안된다는 금제를 위반했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설정은 여성인물이 단순히 사고나 홍수 같은 우연적 사건의 희생자였던 『복선이』, 『채색교』에 비해 비극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성 인물의 과격한 설정은 빈궁의 문제를 그려야한다는 작가의 의식이 소설적 리얼리티를 넘어서버렸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실제로 이러한 빈궁의 문제의식이나 실제 빈민들에 대한 인식은 이 시기 백신에의 수필에서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935년 12월 발표된 소설 『정현수(鄭賢洙)』에서부터 백신에 소설에서도 지식인 남성이나 전향한 사회주의자 남성 등이 등장하며 가부장제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

35) 백신에, 『식인』, 『비판』, 1936.7.

은 오히려 이러한 2기 소설들에서 더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1기 소설 중 1935년작 『악부자(顎富者)』는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상당히 강화된 소설적 구조를 성취하고 있다. 턱이 길어 ‘택부자’라는 별명을 가진 경춘(敬春)은 자신의 턱과 살림을 동일시한다. 턱이 길면 늦복이 있다는 미신을 굳게 믿는 그는 아내의 폐병 때문에 오리 밖 방천공사장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된다. 콩나물죽을 먹고 각혈을 숨기며 노동하는 경춘의 모습은 해산기를 숨기며 노동하고 콩나물을 먹다 죽는 『식인』의 옥계택과 유사하게 형상화된다. 아내가 피를 토하기 시작하지만 품삯을 받는 날이라 반드시 일터로 나가야 했던 날 아내가 죽는다는 설정이나 인물의 성격 형상화 역시 상당히 밀도가 높다. 끝까지 아내의 죽음을 부정하면서 속임수 돈이라 아내가 화났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춘의 순박함이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데, 당시의 물가(物價)까지 정확하게 명시한다거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속임수들을 보여주는 등 이전 작보다 훨씬 사실성을 추구하고 있다.

3.4. 장편의 시도와 실패

작가의식과 체험세계 사이의 간극은 결국 백신애로 하여금 장편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백신애는 『의혹의 흑모(黑眸)』(1935)라는 장편소설을 『중앙』에 1회 연재했으나 이후 진행시키지 못했다. 부르주아 유학생인 성수, 연주, 연순의 에피소드가 일본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혼혈소녀 로라가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으로 백신애의 이국취향이 드러난다. 백신애의 수필 『눈 오던 밤의 춘희(春姬)』를 보면 동경 승비곡 공원을 함께 걸었던 외국 여인에 대한 회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 소설에 일부 반영된 것이라 파악된다. 장편소설 외에도 『멀리 간 동무』 같은 소년소설도 시도되는데 만주행을 떠나는 유이민 가족을 그린 콩트 『가지 말게』

와 소재적 동질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4. 2기 소설 : 체험 세계에 대한 성찰(1936~1937년)

4.1. 아버지의 죽음과 인식의 전환

이 시기 백신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백신에의 부채의식은 어머니에 대한 그것만큼 강했는데 수필 「사섭」, 「울음」, 「봄햇살을 맞으며」 등에서 당시 백신에의 심경을 재구해볼 수 있다. 백신에는 1936년에 소설 4편을 썼지만, 1937년에는 단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았다. 아래 수필을 보면 그 원인과 심경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심중(心中)으로는 그다지 금(禁)하시든것이니 백일간(百日間)만 읽지도 쓰지도 안으리라고 결심(決心)하였다. 백일(百日)이 지난뒤에 이제는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의것이면 쓰기도하고 읽기도하자고 생각하였드니 그것이 버릇이되어 이제는 내스사로 펜을들고 싶으지가안어져버렸음으로 요즘에도 『쓰자.....』하고 펜을 들고있으면 떼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으며 그대로 우울(憂鬱)에 잠기고만다.³⁶⁾

수필 「울음」에서는 생전 초상에서도 곡을 금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한층 더 슬픔을 느끼는 딸의 심경이 드러난다. 「사섭」에서 그녀는 반야월 과수원으로 자신을 보내려고만 하던 아버지가 실상은 딸의 위병을 걱정해왔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를 거역하며 썼던 글이 값있기는 커녕 건강만 소모했다고 자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글쓰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자각하기도 한다.

36) 백신에, 「사섭」, 『조광』, 1937년 제3권 9호, 45쪽.

1기와 2기의 분기점이 되는 작품은 『정현수』로 파악되는데, 이 작품을 필두로 백신애는 농촌 빈공의 문제에서 자기 계층의 문제로 눈을 돌린다. 백신애의 여성주의관 역시 변모를 겪는데 1935년 수필 『사명에 각성한 후』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양두사에 비유하며 여성의 진면목은 모성의 신창이라는 엘렌케이에 수공³⁷⁾한다. 『적빈』에서 거의 신성하게 그려지는 모성애가 그러한 작가의식의 한 발로였다고 보여진다. 모성의 신창이 아닌 직업적 성공은 오히려 남자 실업군을 범람시킨다는 이유로 경계하던 백신애는 그러나 1년 후인 1936년 『여성 논단』³⁸⁾에서는 요릿집과 기생방의 예고이스트로 몰락한 조선 청년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화를 보인다.

청년에 대한 비난은 수필 『매화(梅花)』³⁹⁾에서 매화처럼 계절감각에 예민한 모던보이 이야기로도 변주되며, 전락한 룸펜 지식인을 소재로 한 소설 『학사(學士)』(1936)⁴⁰⁾에서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이 시기 백신애는 빈공의 문제보다는 자기 계층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타락과 균열을 형상화하게 되고 그런 까닭에 그 속에서 여성이 겪는 구체적 현실이 부각된다. 이는 백신애 자신이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의 이면을 취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4.2. 남성지식인의 형상화

먼저 전술한 『정현수』(1935)는 소재의 변모는 물론이고 서술방식의 변모로도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정현수는 내성적, 결벽적인 치과의사로 외부세계를 ‘초랑이탈을 쓴 놈의 사회’로 파악한다.

37) 백신애, 『사명에 각성한 후』, 『신가정』, 1935.2.

38) 백신애, 『여성논단-여성 전체의 필요』, 『조선중앙일보』, 1936.1.24.

39) 백신애, 『매화』, 『조선문단』, 1936.1.

40) 백신애, 『학사』, 『삼천리』, 1936.1.

네-그렇습니다, 나도 푸른자-하늘색과자-망망대해의 그물빔을 사랑합니다. 이놈의 세상은 허위와 가식으로만된 사회입니다. 모조리 초랑이탈 쓴놈의사회이지요. 참다운 인간의사회가 안됩니다. 라고 왜 내속맘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안었든가.⁴¹⁾

이런 관념은 그러나 직접체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대신 주로 창가에 앉아 바깥세계를 관찰하는 그의 태도에서 추출된 바로 보인다. 사교성이 없는 까닭에 늘 손해를 보는 병원 창가에 앉아 그는 명회를 생각하는데 명회는 옥색 꽃을 찾는 심각한 진리의 탐구자를 자임하는 인물이다. 백신애가 1937년에 발표한 수필 『초화(草花)』⁴²⁾에서 자신이 푸른 꽃을 찾아 울릉도를 다 뒤졌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회와 정현수는 일정 부분 작가의 면모를 공유한 인물들로 파악할 수 있다. 정현수의 관찰 대상은 자동차에서 말(馬)로 이어지는데 자동차를 보며 분노하는 정현수의 태도는 이미 두 달 전 작가의 수필 『정거장 4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서술되었던 것이다. 정현수의 시선은 말로 옮겨가 무거운 짐을 진 말을 세상에 의한 희생자로 해석하고 자신, 명회와 동일시한다. 이 과정은 연속적인 부정의 부정 구조로 서술된다.

『안이 이자식 무엇이었제, 인간이란 본래 허위, 가식으로 된거야. 죽어 없어지기전에는 이세상, 면천은 못하는거다. 안이다, 이자식이 무슨이런생각을해. 참으로 인간이란 허위와 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놈의 세상에는 살어 잇지 안을터다 아이다 그러치도 안은 것이다 말쑥에 구을너도 이생이 좇타는데...』 그는다시 부채를 슬렁슬렁 부치기 시작하였다. 『에-공연이 온갖 오라질 생각을다 하는구나, 찰아리 저 말색기놈이 나보다 행복하다. 이짜위 밋도숫도 업는 생각도 할 줄 몰오고, 안이다, 말색기갓치 무의무식 하다면 나올께뛰잇나, 그러치도 안타, 맛찬가지다...』⁴³⁾

41) 백신애, 『정현수』, 『조선문단』, 1935.12. 17쪽.

42) 백신애, 『초화』, 『문원』, 1937.

자기 부정을 거듭하며 고뇌하던 그는 이후 형에 대한 사랑에 감명을 받으면서-이 부분의 연결과 깨달음은 어색하게 처리되고 만다-진리란 것은 허위 가식으로 된 세상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과 함께 정현수는 갑자기 명희의 고상함이 우습다고 느낀다. 이는 「초화」에서 푸른 꽃을 찾아 헤매던 작가 자신의 열결성과 허영에 거리를 취하고 있는 태도로 파악할 수 있다.

정현수가 작품 전반을 통해 의식의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학사」(1936)의 이병환(李炳煥)은 정신적 전락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암울한 처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병환은 일본 W대학 경제학사로 새 양복을 뽐내며 금의환향하지만 곧 식구들의 궁색함에 경멸을 느낀다. 실업자 형이 구해온 군청 자리의 사십원 월급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매겨진, 모욕적 정가(定價)라고 판단한 그는 점차 전형적인 고등부랑자 룬펜으로 변해간다. 고등여학교 출신이며 은행원과 결혼해 과수원을 계획하고 있는 고종사촌 누이가 이병환의 전락을 냉정하게 통찰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며, 작가와 상당히 유사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는 현실을 외면하고 친구들에게 요리와 술담배나 뜯어내는 이병환을 걱정하며 과수원 노동자가 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는 부잣집 딸과의 중매만을 기대하고 결국 누이는 고생을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옹어지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⁴⁴⁾의 한 모습을 발견한다. 이러한 지식인의 소설적 형상화는 백신애 1기 소설과 2기 소설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43) 백신애, 「정현수」, 『조선문단』, 1935.12. 19쪽.

44) 이병환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개화기 지식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개화기 소설 속 지식인들의 특징으로 ‘외국유학 동기나 이후 계획의 불투명성’, ‘대승적 관심의 부족’, ‘부정확한 현실인식’ 등을 꼽고 있다. 조남현, 「개화기 지식인소설의 양상」, 『한국학보』 7, 1981, 106쪽.

4.3. 가부장제의 폭력성 인식

인식인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던 백신에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 근대화와 맞물려 빚어내는 문제들 역시 소설화하고자 했다. 『정조원(貞操怨)』(1936-1937)⁴⁵⁾은 인섭이라는 외과의사와 경순이라는 처녀의 결합실패를 다룬 미완의 중편소설이다. 인섭과 경순은 결혼 전에 손도 잡지 않기로 굳게 맹세를 하지만 정월 보름날 실수로 포옹을 하게 된다. 이에 경순은 계율을 깬 자신을 신경질적으로 저주하고 비난하다가 엉뚱하게도 금융인 김영준에게 시집을 가버린다는 내용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용납하지 않는 계율로서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내면화한 여성의 심리에 작용하는 양상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근대화의 흐름과 만나 오히려 여성을 이중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은 소설 『어느 전원의 풍경』(1936)⁴⁶⁾에서 잘 드러난다. 김상렬의 아들은 조흔한 부인을 구시대적 유물로 여기고 혐오하여 동경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김상렬은 아들을 설득하고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법률을 이용하려 한다. 천벌이 사라져 선악의 표준이 흔들린 자리에 법률이 등장했다는 김상렬의 인식은 곧 백신에의 시대 인식이기도 하다. 법률을 잘 이용하면 양심의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아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은 1930년대 여성의 위태로운 처지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이후 작품 『광인수기(狂人手記)』를 예고하는 것이다.

45) 백신에, 『정조원』, 『삼천리』, 1936.8.~1937.1.

46) 백신에, 『어느 전원의 풍경』, 『영화조선』, 1936.11.

5. 3기 소설 : 자아의 표명과 서술 양식의 다양화 (1938~1939년)

5.1. 이혼과 투병

1938년 5월 백신애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고 친정으로 돌아온다. 9월에는 만성위장병으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하고 중국 청도로 가서 오빠를 만난다. 11월 청도에서 집사를 시켜 이혼수속을 밟는데 이 과정에 오빠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는 진술⁴⁷⁾이 있다. 1939년 5월에는 생전의 마지막 단편 『혼명에서』를 발표한 후 6월 사망한다.

순탄치 않은 개인사 속에서 백신애 소설은 오히려 서술 기법의 다양화를 보였다. 전향한 지식인의 부인이 버림받고 감금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여 쏟아내는 광적인 언설(『광인수기』), 1기에서 종종 발견되던 여성수난 모티프의 반복이되 순진무구한 여성이 외적 요인으로 인해 파멸하고 독부로 명명되는 과정을 독특한 시각으로 그려낸 단편(『소독부』), 중산계층 여인의 허영과 정신적 파탄을 그린 풍자물(『일여인(一女人)』), 모성과 인습 대신 절대적 아름다움에 투신하려는 여성의 의지(『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작가가 겪어온 정체성 투쟁의 결실을 예고하는 서간체 소설(『혼명에서』) 등이 이 시기 작품으로 묶일 수 있다.

5.2. 분열적 발화와 풍자적 거리

『광인수기』(1938)⁴⁸⁾는 『어느 전원의 풍경』에서 예고되었던 구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전향한 사회주의자의 아내가 남편의 부정을 목격한 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7) 이강언, 『백신애 생애고』, 『향토문학연구』 6, 2003, 79쪽.

48) 백신애, 『광인수기』, 『조선일보』, 1938.6.25~7.7.

이 이야기는 정신병원을 탈출한 여인이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하느님’을 수신자 삼아 발화하는 구조로 펼쳐진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느님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하느님을 원망하는데 욕설과 경어, 반말이 혼란스럽게 뒤섞여⁴⁹⁾ 사건의 파악이 지연될 정도이다.

대체 이때려죽일놈의 하느님아 내가 그겨울어름을끄고 목욕하여 빌고빌고하여 몸건강하게 주의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했드니 건강하고 주의자는 그만두었다할지라도 사람을 이러케 변하게해주었노나말이다. 주의자할때는그그게 무엇이란 말이요. 그래 나는 별덕이러나 빨리집을나섰습니다.⁵⁰⁾

여인은 17세에 지금의 남편과 중매결혼을 했으며 ‘소학’을 배웠다는 것으로 보아 구학문에 소양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여인의 분열적 발화에 대한 놀라움을 배가시킨다. 금슬이 좋았던 남편이 일본 유학을 떠난 후 시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친정을 찾아가지만 다시 쫓겨난다. 이후 남편과 재회한 여인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전향자인 남편이 감시를 받을까 걱정하여 치성을 드린다. 여기서 수신자인 ‘하느님’은 바로 이 치성을 받았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전향 후 성격상의 변화를 보이며 신여성 애인에게 부인을 구시대적, 야만적 존재의 표상인 것처럼 묘사한다. 백신에는 한때의 사회주의자가 사랑했던 거창한 이론이 전락하여 이제는 일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현장을 폭로하고 있다. 남편의 부정에 놀란 아내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지식인 남성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목소리가 바로 노출된다는 인상을 줄만큼 이 부분의 서술은 적나라하다.

49) 정끝별은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욕망, 무의식, 공포 등으로 가득찬 여성의 내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해내려는 내적 분열의 언술전략”을 꼽은 바 있다.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 2001, 332쪽.

50) 백신에, 위의글, 1938.7.1.

그말이 죄-다들린말이지 틀렸고말고, 아예당초에 인간이란게 공부를 잘 못하면 제행동이 올튼그른든간, 아니 아무리 틀린일이라도 교묘하게 이론만 갖다 부쳐서 그저 합리화(合理化)하려고만하는 재주만 느러갈뿐인것이 라요...내눈에는 아모리보아도 그이가 하나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했다는 그것뿐이야요 이십여년을 정답게 정답게 아들낫코 딸낫코 살어오다가 고 혼여인을보고 욕심이나니까 마음대로 떳떳하게 욕망을 채울수가 업스니까 별지랄가튼 소리를 다-하는것이지-⁵¹⁾

결국 시대와 처가, 남편에 의해 차례차례 버림받은 여인이 갈 곳은 다리 밑 밖에 없으며 그 곳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잃은 언어로 하늘에 발화하는 것 뿐임⁵²⁾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술했듯 사회주의에 대한 백신애의 태도는 투철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고 그마저도 이후 변질되어가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대체되었음을 작가 자신이 수필을 통해 표현한 바 있다. 이 소설은 신여성들의 여성해방담론 속에서 계몽의 대상으로만 타자화되고 있던 구여성의 처지를 충격적인 스타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신성과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에 의해 '야만'으로 규정되는 구여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소외된 존재임을 인식했다. 2기에서는 주로 빈궁과 야만적 남성에 의해 희생당하는 시골 빈민 여성을 그렸다면 이제는 신성과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에 의해 '야만'으로 규정되어버리는 중산층 구여성들의 모습으로까지 그 작가적 시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가는 자신이 속한 중산계층 여성의 허위의식 역시 비판한다. 『일여인』(1938)⁵³⁾은 길지 않은 소설임에도 끊임없이 화장품과 음식물의 명칭이 나열된다.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51) 백신애, 위익글, 1938.7.3.

52) 안숙원, 위익글, 336쪽.

53) 백신애, 『일여인』, 『사해공론』, 1938.9.

이 여인은 하인을 셋이나 부리는데 세숫물 온도 등에 대해 까다롭게 굴며 마님 행세를 한다. 이런 여인의 모습은 비록 우스꽝스럽기는 하나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작가 본인의 주변 세계에서 구해진 것임을 다음의 수필에서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나기 싫은 것을 어머니의 핀잔을 마저가며 억지로 툇마루에 나안저 세수물 열는가져오지안는다고 트집을잡고 흥흥거리고있으려면 부엌계집아이가 바구니를 여메끼고 어깨를 웅쿠린체 서리가 하얗게내린 압집의집옹이 환이보이게열어 大門밖그로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러 나가는것을 본다. 나는 계집아이의 저고리가 열버서 치올터어지라고 생각하며 대야에 서손을담근채 명-하니 안젓으려면 엇지된일인지 골통속이 행하니 치위지는듯 맑은정신이새여온다.⁵⁴⁾

유년기 독선생과 한문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세숫물을 가져오지 않는 하인에게 트집을 잡고, 또래 여종이 심부름 가는 것을 보면서 세수를 했다고 회고하는 부분이다. 소설 속 마님-하인 간의 대화와 심리묘사, 중류 여성들의 대화와 음식에 관한 세부묘사는 이전 시기 백신에 소설이 상당히 거친 서술을 구사했던 것과 대비된다.

여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꼭 마님으로 불리기를 주장하며 싫다는 아들에게 억지로 오트밀을 먹인다. 천석꾼 시아버지가 죽은 후 몰락한 시집

54) 백신에, 『서리찬 새벽. 벌레 먹은 포푸라입새. 아! 상업의 입종이여, 부러워라』, 조선일보, 1937.10.7 5면. <深秋閨怨> 이라는 코너에 실린 이 글은 현재 연구된 백신에의 수필작품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기타 연구논문에서의 언급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38년에도 <秋日詞藻>라는 유사한 코너가 유사한 시점(9.11~9.28)에 마련되어 작년의 필진(모운숙, 최정희, 이선희, 백신에)과 거의 유사한 필진(모운숙, 최정희, 이선희, 노천명)의 글을 실으면서 ‘여류수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노천명은 이 때 기고한 글을 본인의 수필집 『사슴과 孤獨의 對話』에 포함시켰으므로 백신에의 글 역시 수필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글은 백신에가 자신의 유년기를 회고하며 서리 내리는 가을날의 감상을 읊은 전형적 수필로서 백신에의 유년학습기에 대한 정보 등이 드러난다.

형편 때문에 자신은 간청어와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여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배부른 척을 한다. 심지어 비싼オート밀을 먹일 수 없는 때에는 아들의 식사를 돌보아주지 않는다. 자신의 환상과 허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과장되어 아들의 선생님을 중세의 기사로 상상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이는 작가 자신의 계층에 내재한 허위성과 병리성을 폭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백신애는 수필 『백안(白雁)』⁵⁵⁾, 『자수(刺繡)』⁵⁶⁾, 『금계납(金鷄納)』⁵⁷⁾ 등을 통해 하층과 융화되지 못하는 부르주아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었던 바 있다. 작가는 하층민들의 질문에 일부러 거짓으로 답하기도 하고(『백안』) 매화와 나비를 함께 수놓아 달리는 이웃집 소녀의 요구를 조소하기도 하며(『자수』) 함께 빨래터에 나가 하층 여성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모든 병에 금계납만 먹는 그들의 무지를 탄식(『금계납』)하기도 한다. 하층을 존중해준다는 자부심 아래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조소와 경멸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성향은 그녀의 1기 소설이 추상적이라고 비판⁵⁸⁾받는 한 까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여인』에서는 마님이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 부르주아적 세계관이 풍자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하인들의 독백이나 비아냥, 서술자의 평가적 개입, 마님의 외모나 행동거지에 대한 냉정한 보고 등으로 인해 풍자적 거리가 확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작품 속 서술자의 태도가 작가의 현실인식 변화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층적 우월성은 우월성대로, 신식문물은 신식문물대로 누리고자 하는 병적 심리의 한 여인을 풍자함으로써 금비너

55) 백신애, 『백안』, 『조선일보』, 1937.3.5~3.7.

56) 백신애, 『자수』,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4.

57) 백신애, 『금계납』, 『여성』, 1937.6.

58) 이증기, 『해설: 백신애-그 미로를 따라가다』, 『백신애선집』, 현대문학, 2009, 487쪽.

와 서적 속에서 고민하던 작가 자신의 허영에 대해서도 부분적 거리두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설로서는 미달된 형식에 머물기도 했던 초기작들에 비해 훨씬 능란해진 풍자적 서술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몸담은 세계에 적합한 형식을 계속해서 탐구, 수련해나가는 작가의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5.3. 주체적 의지의 표명 : 아름다움과 힘

미완의 유작 『아름다운 노을』⁵⁹⁾과 단편 『혼명에서』는 모두 백신애가 사망한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글에서 전제한 바는 이 두 작품이 백신애라는 작가의 최종적 지향점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이들 두 작품을 통해 데뷔작 『나의 어머니』(1929)에서 제기되었던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응답된다고 보았다. 우선 작가의 사망 후 발표된 미완성 소설 『아름다운 노을』(1939)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미완성 작품은 출판연도로는 『혼명에서』보다 늦지만, 실제 구상이나 집필 시점은 불명확⁶⁰⁾하다. 게다가 1937년도 수필을 살펴해보면 다음과 같은 발언도 눈에 띈다.

금년 봄에는 마음을 정리하여 발서몇해전에 구상했던 장편소설을 써버리라고 결심하듯 마음을먹었다. 장편을 쓰느라면 자연그동안은 마음이 안정도되고 자위도되며 따라서 차차생기와 용기도 회복되어지려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봄한철이 소설의 구성안을 꾸미느라고 원고지단한장에 이리저리 아희같은 글짜를 써놓았을뿐으로 헛딱지나가버리고...⁶¹⁾

59) 백신애, 『아름다운 노을』, 『여성』, 1939.11~1940.2.

60) 홍기돈은 백신애가 장혁주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혼명에서』보다 일찍 씌어지기 시작한 이 작품의 발표를 미뤘다고 추정한다. 홍기돈, 『백신애가 지향한 이념의 방향과 문학 좌표의 설정』, 『우리문학연구』 27, 2005, 381쪽.

61) 백신애, 『사섭』, 『조광』, 1937.7. 44쪽.

여기서 작가가 구상 중인 장편이 『아름다운 노을』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후 그녀가 남긴 유고 중 장편을 겨냥했던 것은 『아름다운 노을』 뿐이었고, 1935년작이었던 『의혹의 흑모』같은 경우도 미완성 중편이기는 하지만 이미 구상, 발표되었던 것이므로 『사섭』에서의 진술과 어긋난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아름다운 노을』이 작가의 최종작이라는 판단은 다소 유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노을이 질 무렵 한 화가가 서술자에게 고백하기 시작한 이야기⁶²⁾가 밤-아침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된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미술 유학을 하고 돌아온 순희는 아들 하나가 있으며 남편과는 사별했다. 유학 시절부터 그를 좋아했던 의사 성규의 구혼 압박 속에 있던 그녀는 우연히 성규의 동생 정규에게서 이상(理想)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소년 정규의 얼굴을 화폭 위에 배치하겠다는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정규를 보기 위해 성규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애정 심리는 거듭 부정한다.

금강산 비로봉 절경 위에 소년을 배치하려는 그녀의 구상은 의미심장한데, 청정한 미의 세계를 구성하면서 남성을 그 속에 배치하려는 그녀의 시선이 상당히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식인 여성의 능동적 욕망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1기나 2기의 백신애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남성을 미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전유하려고 하는 여성 주체의 의지는 백신애 소설의 여성문학적 특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결국 성규와의 결혼식 전날 재회한 순희와 정규는 둘 사이의 거리를 잊고 내달리다 개천에 떨어지고 결혼은 취소된다. 미완으로 끝나고 있는데, 인습과 욕망 사이의 대립을 다소 비껴가면서 모호하게 처리⁶³⁾

62) 이 작품의 액자소설 구조, 절대미를 추구하는 화가의 모티프 등이 김동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다음의 논문 참고. 안숙원, 위의 글, 340~341쪽.

63) 독특하게도 소설 속 ‘순희’는 자신이 재혼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한 경향은 있지만, 서술자를 순희가 아닌 순희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소설가로 설정함으로써 통속성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공감적 거리를 얻고 있다는 점과 창조적 주체인 여성 예술가의 절대미 추구라는 소재의 참신성이 두드러진다.

『아름다운 노을』이 미와 사랑에 투신하려는 여성인물을 그리고 있다면, 『혼명에서』(1939)⁶⁴는 ‘절대의 힘’을 추구하며 과거와 결별하려는 의지적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자전적 체험이 여러 군데서 고백되는 동시에 서간체 소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⁶⁵으로 백신애가 남긴 단편 중 분량 면에서도 가장 길다. 작품은 가을-겨울-봄에 걸친 세 편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인물의 의식 변화와도 상징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는 주무실 때 『보문품경(普門品經)』을 읽어드리는 효녀이고 백합화 침구에서 자는 유복한 여인으로 고질적 위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작가의 개인적 처지와 닮아 있다. 이 여인은 스스로 혼명에 빠져있다고 느끼고, 이것이 참 자기를 찾지 못하게 떠드는 세상의 시끄러움 때문이라 파악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끄러움 중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의 요구들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의 어머니』와 그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혼명에서』의 ‘나’의 결단이 10년 전 제기되었던 정체성 혼란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금비녀’와

다음과 같다. 1. 순희의 아들이 형수의 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2. 친정아버지가 가독을 순희에게 상속시키려 한다는 점.

64) 백신애, 『혼명에서』, 『조광』, 1939.5.

65) “어쨌든 허구적인 형태의 서간체로 이루어진 것이 서간체소설이거니와, 이는 행동의 표상에 대한 강한 직접성 내지는 사건에 대한 밀접성과 그 자기확증성 때문에 어느 다른 형태보다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한국학술정보, 2003, 193쪽.

‘서적’ 사이의 긴장으로 비유되었던 문제가 여기서는 ‘옥돌’과 ‘바윗돌’의 비유로 나타난다. 나로 하여금 매끄럽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세상의 감정(鑑定)을 받도록 종용하는 가족의 요구는 그것이 혈육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에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한 결혼이 이혼으로 귀결된 상태에서 혼명은 더욱 심해지고 ‘나’는 충동적으로 경주행 기차를 탄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S가 바로 서간의 수신자이다. 나의 고민에 대해 신랄한 비판으로 시종하는 이 인물은 지난 가을 우연한 3번의 만남을 가진 남성 사상가로 이 만남은 모두 기차에서 이루어진다. 전술했듯 백신애는 기차의 용단성을 동경하는 수필 『정거장 4제』를 쓴 적이 있다.

한번 껍썩 소리만 지르면 백사만사 다 제지하고 그저 달아난다. 어디까지든지 두 줄기로 정답게 뻗쳐 있는 레일 위를 티끌만 한 장애도 없이 절대의 특권을 가지고 저 혼자만 달려가는 그 유쾌함이야 감히 자동차 같은 소인배들에게 비할 바이리오. 일본일초의 에누리도 사정도 없이 울며 잡는 수많은 소매들을 다 떨쳐버리고 간다면 가벼리고야 마는 그 용단성(?)이야 얽매어 사는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부럽고 통쾌한 존재이라.⁶⁶⁾

백신애는 자신을 구속하는 ‘소매들’을 떨치고 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한 상태였기에 기차의 용단성을 동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백신애 소설 문체의 전반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음표와 느낌표의 과잉, 격정적인 어조가 서간체의 특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는 까닭에 가족이라는 분리불가능한 대상을 미워하면서도 공감하는 복합정서가 밀도있게 그려진다. 이에 비해 S는 강경한 피상적, 이론적 주장만 펼친다. 하지만 이혼이 불러온 고통과 시끄러운 세상의 말들에 시달리던 ‘나’에게는 그러한 S의 강경함이 오히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기능

66) 백신애, 『정거장 4제』, 『삼천리』, 1935.10.

을 한다. 가족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던 ‘나’의 필요가 오히려 S라는 인물을 이상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S는 구체적인 한 남성이라기보다는 ‘나가 일관해왔던 ‘힘에 대한 동경’을 폭발시키는 한 계기이다. 그래서 ‘나는 S를 연애의 대상으로 부르기를 거부하고, ‘연애 이상(以上)’이라고 말한다.

결국 나는 S에게 감화된 이 힘으로 가족들을 설득하고 차근차근 S와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 과정이 무척 소략하게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정체성 혼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다만 『나의 어머니』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표면적 순종으로 일관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결국 신념으로 어머니의 걱정을 없앴다고 서술된다. 봄이 오면 S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나’에게 S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는 슬퍼하면서도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기뻐한다. 한때 ‘나는 옆에서 S가 지속적으로 돌보아주어야만 자신이 한 인간으로 설 수 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 나를 찾게 한 것은 S가 아니라, S를 기다리는 겨울 동안 수행된 자기검토의 과정이다. ‘나는 정적 속 무아몽중이 참된 자신을 가져다주었다고 고백한다. 가족과의 분리를 원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했던 과거의 자신과 날카롭게 단절하는 모습은 데뷔작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인물의 태도를 보여준다.

내가 가야될 길! 단하나 바른 나의 궤도(軌道) 위에 올려세운 내기차는 지금 초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 “힘!” 절대 의미! 이것이 당신이었으니, 이당신에게 죽음을 당한 나이지마는. 나는 아직 살아야되는 엄연한 사실을 앞에놓고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두고간 그군센 의기! 이것만은 당신의 죽음이 아서가지는 말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두고간 그 맹렬하던 의기의 한조각을 내죽는날까지 놓을수 없습니다. 나는 힘껏 트러잡고 내삶을 지탱해 나갈것이며 내 가는길의 운전수를 삼겠습니다.⁶⁷⁾

결말에서 ‘나’는 S로 인해 자기 정체성을 찾고 가는 길을 초고속 기차에 비하고 있다. 그리고 S가 남겨준 힘을 운전수 삼아 맹렬한 의기로 자기 궤도를 달리겠다고 결심함으로써 한 여성으로서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생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백신애의 작가의식이 다다른 마지막 지점이며, 10여 년의 세월을 두고 창작활동을 통해 백신애가 표현해온 여성 정체성 문제의 답이라 볼 수 있다.

6. 결론

백신애는 1929년 데뷔하여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이십여 편의 소설과 삼십여 편의 수필을 발표했다. 정체성 혼란을 거친 서술로 뿔어났던 데뷔작에서는 작가가 놓여있는 정체성 갈등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 문자 활동에 대한 아버지의 금제(禁制) 속에서 작가는 어머니가 상징하는 안락한 일상세계와 오빠가 상징하는 투쟁과 혁신의 세계를 놓고 갈등한다.

이후 1기 작품들에서는 주로 유이민이나 빈민 여성의 처절한 삶을 그림으로써 후자를 택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작품들 속에는 여전히 사상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의 개성과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내장되어 있다. 2기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과 작가의 체험세계 사이의 연관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부정에 빠진 지식인이나 룸펜, 혹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요당하는 중산계층 여성들이 등장했다. 이는 작가가 특정한 이념을 통한 세계 인식에서 나아가 작가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통찰을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3기에서는 중산층 여성들의 전략이나 타락을 다룬 작품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이후 절대미나 힘의 추구 등을 결말로 내세운 작품이 등장한

67) 백신애, 『혼명에서』, 『조광』, 1939.5, 264~265쪽.

다. 특히 인습을 뛰어넘은 미(美)와 사랑의 추구가 돋보이는 소설 『아름다운 노을』, 고뇌와 결단을 고백하는 태도의 절실성이 두드러지는 서간체 소설 『혼명에서』를 통해 작가 자신이 참된 여성 주체를 표명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백신에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작품들의 흐름을 통해 작가의식의 변화 역시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백신에의 소설 세계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되어 이념을 통한 세계 이해와 자신의 체험세계 성찰을 경유하면서 참된 여성 주체에 도달하고자 했던 10여 년의 여정으로 해석하였다. 백신에 소설이 보여주는 정체성 탐색의 글쓰기 과정을 다른 여성작가들의 그것과 함께 살펴 그 특성과 원리를 뚜렷이 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백신애, 「나의 어머니」, 『조선일보』, 1929.1.1.
백신애, 「落伍」, 『중앙』, 1934.2.
백신애, 「納涼二題」, 『조선문단』, 1935.4~5., 183쪽.
백신애, 「정거장 4제」, 『삼천리』, 1935.10.
백신애, 「鄭賢洙」, 『조선문단』, 1935.12.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
백신애, 「私囁」, 『조광』, 1937년 제3권9호, 45쪽.
백신애, 「서리찬 새벽. 벌레 먹은 포푸라입새. 아! 霜葉의 臨終이여, 부러워라」,
『조선일보』, 1937.10.7 5면.
백신애, 「昏冥에서」, 『조광』, 1939년 5월.
백신애, 「狂人手記」, 『조선일보』, 1938.6.25~7.7.
백신애, 「아름다운 노을」, 『여성』, 1939.11~1940.2.
백신애 저, 최혜실 편, 『아름다운 노을(외)』, 범우, 2004.
백신애 저, 이강언 편, 『제목 없는 이야기』, 홍익출판사, 2005.
백신애 저, 이중기 편, 『백신애 선집』, 현대문학, 2009.

2. 단행본

- 이재신, 『한국단편소설연구』, 한국학술정보, 2003, 193쪽.
Philippe Lejeune,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35쪽.

3. 논문

- 김지영, 「백신애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38, 2008, 35~67쪽.
김현전, 「백신애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방영이,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2.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7.
안숙원, 「백신애의 반미학과 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 4, 2000, 315~349쪽.

- 이강언, 「백신애 생애고」, 『향토문학연구』 6, 2003, 64~82쪽.
- 이은숙, 「백신애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1989.
- 이은희, 「백신애 소설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 2001, 307~336쪽.
- 정일진, 「백신애소설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1989.
- 조남현, 「개화기 지식인소설의 양상」, 『한국학보』 7, 1981, 89~106쪽.
- 조남현, 「박영희소설 연구」, 『인문과학논총』 18, 1986, 25~43쪽.
- 최혜실, 「백신애 문학에 나타난 이중적 타자성」, 『현대소설연구』 24, 2004, 25~48쪽.
- 표언복, 「한민족문화의 외연」, 『한민족문화연구』 20, 2007, 117~156쪽.
- 하소양, 「백신애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 한명환, 「백신애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6.
- 한명환, 「백신애문학연구의 향방과 전망」, 『인문과학논총』 23, 2009, 103~133쪽.
- 홍성순, 「백신애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Paik Shin-ae's novel
-Female Author and Writing of the Quest for Identity-

Woo, Shi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process of the quest for identity in the Paik Shin-ae's novel and to elucidate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First, Paik Shin-ae showed special transition of author's consciousness because of her marginal character. She experienced confusion of identity between her mother and older brother. Her mother expected comfort and easy life from her. But her older brother pursued a socialistic struggle. Her confusion was illustrated by her first novel 『My mother』. This novel could show a direction of interpretation for another Paik Shin-ae's novels.

Second, this study explored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of each period by dividing 1st, 2nd, and 3rd periods of Paik Shin-ae's novel. Her first autobiographical novel showed that her writing is the quest for identity. And migration novel and poverty novel in 1st period showed h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rough ideology. The world in these novels was far away from Paik Shin-ae's personal life. On the contrary, many novels in 2nd period exposed the process of introspection on the world around Paik Shin-ae such as male intellectual's inner side and the middle class women. Considering these novels, it was found Paik Shin-ae has changed her focus of creation. The active female subject who chasing absolute beauty and power appeared in 3rd period novels. Through this, we could look how Paik Shin-ae expressed the active female subject.

Third, this study used Paik Shin-ae's essays for analyzing her novels. It is possible to interpret her novels by using her experiences and ideas in

the Paik Shin-ae's essays. In this process, Paik Shin-ae's unknown essay 「Frosty dawn. A wormy poplar leaves. Ah! last moments of frosty leaves, I envy you」was found.

Key words : Paik Shin-ae, Paik Shin-ae's novel, quest for identity, marginal being, female subject, feminine writing, autobiographical novel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